



회원 단합으로 재도약 준비하는 노원지회

# 회원 어려움 살피는 회원 나눔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다른 빛을 내는 곳이 있다. 서울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노원지회는 규모는 작지만 지회와 회원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졌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노원지회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다.

취재\_정술이 기자 · 사진\_전문식

수락산과 불암산이 병풍처럼 감싸 안고 있는 노원구는 대대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서울 북동부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통에 소규모 자영제과점이 유독 많던 노원지회는 지회운영에 위기감마저 느끼기도 하지만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지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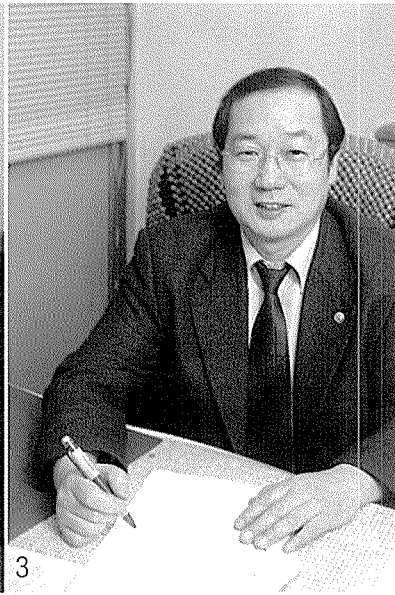
자영제과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난해 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도약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노원지회는 노원구를 품은 두 개의 높은 산처럼 회원 업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회원 나눔터’가 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회원업소 실익 증대 위한 특단의 아이디어 노원지회 홍영표 지회장이 처음 취임했던 지난 2000년 무렵에는 재료상, 대리점 등 협력업체와 연계가 잘 이뤄져 협력업체와 회원 사이의 공동구매 체계를 구축했다. 협력업체를 통해 밀가루와 버터, 우유 등 여러 가지 원부재료와 상자, 리본 등의 포장 재료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서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눠 썼다. 회원업소가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줬고 가격에 만족한 회원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지회에 수입금으로 돌아와 지회 살림을 꾸리는데 큰 보탬이 됐다. 업체 또한 제품을 지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돼 여러모로 ‘뽕 먹고 알 먹고’ 나 다름없었다. 노원지회 임원들은 “회장단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협력업체 공

동구매가 최근까지 협회의 주요 재원이 됐을 만큼 획기적인 사업이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오랜 불경기로 많은 재료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요즘 들어 취급품목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아픔이 있기도 했지만 노원지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동구매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쇼케이스 속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제와 광택제는 물론이고 지난해 표백제 파동을 겪은 밤 또한 지회 차원에서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노원지회는 매달 11일이면 한 달도 빠짐없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노원구를 8개로 나눈 지역마다 대표를 뽑아 다양한 목소리를 주고받는다. 요즘 노원지회 이사회에서는 ‘세미나가 가까운 곳



좌 사진 왼쪽부터 지회 일이라면 언제라도 출동하는 김재연 감사와 이대균 자율지도원, 손영철 사무국장, 홍영표 지회장, 이기원 수석부회장, 최형일 부회장. 1 회원업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 힘들다고 늘 진땀 인상을 찌푸릴 수만은 없듯이 참신한 기획거리가 터져 나올 때면 웃음꽃이 활짝 핀다. 3 홍영표 지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들에게 앞선 정보를 전하기 위해 언제나 발로 뛰어왔다.

에서 열리면 좀 더 자주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노원지회는 오너셰프가 혼자서 일하는 영세한 제과점이 회원의 대부분인데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의 중심부와 너무 멀어서 세미나가 개최돼도 아주 큰 맘을 먹지 않고서는 참석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홍영표 지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의 논의를 거쳐 8개 지역을 3~4개씩 묶어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제과점의 공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재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세미나와 매장 시식회를 연계해 바로바로 고객의 반응까지 살필 계획 또한 갖고 있다. 홍영표 지회장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쌀빵 업체, 요구르트 업체 등 다양한 재료업체와 함께 지역 세미나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노원을 대표하는 공동 프로모션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자율적 리더십으로 회원과 지회 모두 만족**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아야 회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협회 또한 '으쌔으쌔' 힘이 나는 법이다. 노원지회는 오랜 불경기로 회원 업소가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의무감과 생존을 위한 각오로 홍영표 지회장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다시 힘을 모았다. 임원진은 개인적인 회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지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노원지회는 가장 먼저 과우회 모임을 강화했다. 회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라서 지회가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까닭에서다. 과우회에서 아우회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회원들은 물론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기도 한다. 덕분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회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나아가 협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는 등 노원지회 과우회는 지난 12년 동안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은 물론 정보 교환의 장이 돼 왔다.

반면에 회원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협찬이나 공동 행사는 최대한 줄여나갔다. 해마다 가정의 달이나 연말연시를 맞이해 또는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지회를 통해 빵과 케이크의 협찬 요청이 줄을 이어 회원들에게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불우이웃돕기나 푸드뱅크 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떠안기듯 이중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회 차원이 아닌 회원 자발적으로 이

웃돕기활동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노원구청에서도 지회의 뜻을 이해하고 지역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게 됐다고.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업소들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 위생과와 협력해 자율지도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회원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지난해 '제휴카드 폐지를 위한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기금 모금에 회원 모두가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해 인근 지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홍영표 지회장은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나라고 빠질 수 있겠냐"며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노원지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회원 숫자나 지회의 규모로 볼 때 지난해 모금활동은 노원지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

노원지회는 비대위 모금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비록 지금은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오너셰프들이 힘을 모치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기를 살리는 일이라면 노원지회는 무엇이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회와 회원의 사랑 나눔터 '노원지회'가 머지않아 활짝 꽃을 피우는 봄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